

# 김인식 감독, 4년전 실패에서 길을 찾다



이명노 기자의 오키나와 리포트

4년전 대만 캠프 '실전 감각' 부족 최대 패인  
日 최고팀과 연습경기 외국인투수 투입 요청  
"빠른공 눈으로 본게 소득...내야구명 확인도"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한국대표팀에 '실욕'의 무대다. 2006년 1회 대회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한국야구가 2013년 3회 대회 2라운드 탈락이라는 굴욕을 맛봤기 때문이다. 1·2회 대회 사령탑이었던 김인식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김 감독은 4년 전 대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세세한 측면에서 김 감독의 복심이 느껴진다.

### ●150km대 강속구, 요미우리·요코하마전의 숨은 의도

19일 요미우리와 연습경기를 치른 대표팀은 22일 요코하마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캠프를 마무리한다. 요미우리는 한국대표팀을 상대로 외국인투수 2명(마일스 미콜라스, 아르키메데스 카미네로)을 등판시켰다. 대표팀 입장에선 좋은 '교재'였다. WBC에서 상대해야 할 외국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은 물론이고, 강속구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카미네로는 150km가 넘는 공을 너

무나도 쉽게 던졌다. 한 달 가량 빨리 실전감을 끌어올려야 하는 타자들로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셈이었다.

김 감독은 "빠른 공을 눈으로 본 게 소득"이라며 4안타의 빈타에 허덕인 타선이 얻은 게 분명하다고 평했다. 또한 "한 번은 쳐보고, 한 번은 이겨봐야 한다. 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런 공을 쳐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KBO가 굳이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요미우리와 요코하마 등 일본 최고의 팀들과 연습경기를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대회 2라운드 1라운드가 열린 대만에서 캠프를 열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1차전 네덜란드전에서 4안타의 빈타에 허덕이며 0-5로 완패했다. 실전감각 부족은 1라운드 탈락의 결정적 이유였다.

대표팀은 요미우리와 요코하마 측에 외국인투수를 최대한 많이 등판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요코하마는 한국과 연습경기에 앞서 20일 열린 KIA전에 외국인투수를 1명도 등판시키지 않았다. 외국인투수들은 한국전 출격을 준비 중이다.

### ●실점을 줄이는 디테일, 실패 반복하지 않는다!

타자들이 강속구를 보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사이, 코칭스태프도 대외요강을 숙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4년 전 대회에서 1라운드에서 탈락한 건 TQB(Team's Quality Balance) 때문이었다. (총득점/총이닝)-(총실점/총이닝)으로 동률 팀이 나올 경우 맞대결에서 총득점과 총실점의 차이로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2위 팀을 가르기 위한 단판승부, 타이브레이커 게임이 신설됐지만, 3점이 맞물릴 경우엔 TQB 1위가 다음 라운드에 자동 진출한다. TQB를 고려한 득실 관리가 필요한 셈이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결국은 실점을 줄여야 한다. 요미우리전에서도 상대에 집중타를 허용한 게 문제였다. 또 상대가 우리 내야의 구멍을 뚫었다. 타구를 어디로 보내는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그 구멍을 최소한으로 메워야 한다. 그날 경기에서도 수비 위치를 조정했는데 더욱 타이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전 실패의 교훈은 대표팀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최적 상대를 찾은 맞춤 훈련, 그리고 철저한 전력분석을 토대로 한 코칭스태프의 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오키나와(일본) | nirvana@donga.com



오키나와(일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일본 오키나와서 훈련 중인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은 4년 전 2승1패를 기록하고도 득실차에서 1라운드 탈락한 실패를 마음에 새기고 설욕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임창민, 18시간 긴 여정에도 남다른 자신감...왜?

(美 애리조나 투산→오키나와 비행시간)

임정우 교체로 뒤늦게 불펜투수 합류  
"美서 투구수 80개" 첫날부터 정상훈련  
선동열 코치도 "몸 잘 만들었다" 호평

NC 우완투수 임창민(32)은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가장 늦게 승선했다. 17일 몸 상태를 이유로 같은 오른손 불펜투수인 LG 임창우(26)의 교체가 결정되면서 예비엔트리 임창민의 합류가 결정됐다.

대표팀 합류 소식을 듣자마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표팀은 임창민의 '즉시 합류'를 요청했다. NC의 1차 캠프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대표팀 캠프가 열린 일본 오키나와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됐다. 임창민 본인 역시 "처음 든 생각이 '어떻게 가지?'였다"고 털어놨다.

대표팀 측에서 급하게 표를 구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18시간에 이르는 여정이 펼쳐졌다. 투산에서 18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한 임창민은 LA 공항을 거쳐, 19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허탈함을 보낸 뒤, 대표팀 휴식일인 20일 오후에 오키나와에 입성했다.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대표팀 물품 일부를 지급받고, 스트레칭으로 지친 몸을 풀고 잠이 들었다. 임창민은 "그래도 한국과 가까운 곳으로 왔

다. 2~3일이면 시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웃었다. 이순철 코치도 "역시 젊어서 그런지 빨리 적응하는 것 같다. 어제도 제때 잘 잤다고 하더라"며 칭찬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조우한 것도 21일 훈련에 앞서 집합했을 때가 처음이었다. 첫 번째 대표팀에서는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 마치 '다른 팀'처럼 낯설기만 했지만, 이전 친한 선수도 늘었다. 임창민은 "아직 유니폼은 못 받았는데 지금이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 불펜피칭 8번, 라이브피칭 1번, 80개 정도까지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왔다"며 몸 상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5 프리미어12 이후 2번째 국제 대회다. 4경기서 2승, 3.2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활약했다. 임창민은 당시 경험한 중남미 선수들에 대한 특징을 떠올리며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유인구로 승부하는 패턴이 필요하다. 나도 구위로 던지는 투수는 아니다. 마운드에서 항상 '여기에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던진다"고 말했다.

합류 첫 날부터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수비훈련에 이어 불펜피칭에서 35구를 던졌다. 선동열 투수코치도 "몸을 잘 만들었다"며 만족해했다. 처음 겪는 WBC 공인구가 다소 낯설었지만, 그는 "팀 동료인 (원)종현이가 오기



WBC 대표팀 막차를 탄 임창민이 짐을 풀다가 무성계 2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불펜마운드에 올랐다. 17일 임정우의 대체투수로 지목된 지 나온 임창민이다.

사진제공 | KBO  
전에 살짝 알려줬다. 2~3번 정도면 감을 잡을 것 같다"며 웃었다.

불펜피칭 후 "이제야 대표팀에 온 것 같다"는 임창민은 "평소보다 15일 정도 앞당겨서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다. 시즌 준비보다 갑자기 빨라졌지만, 상대가 내 몸 사정을 봐주지는 않는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노 기자

## 임창용 캠프서 무면허 접촉사고...23일 귀국 불투명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약자가 닦였다. 최고참 투수 임창용(41)이 훈련을 마치고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자칫 귀국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21일 일본 오키나와 구사키와구장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임창용의 사고 사실을 알렸다. 임창용은 18일 훈련을 마치고 오후 8시경 나하 시내에서 지인의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임창용이 운전을 하다 건널목에서 정차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편의점에 물을 사러 내리는 과정에서 문을 열다 차도 옆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경찰이 출동했고, KBO에 따르면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보험처리 후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차들이 정차한 상황에 차도 옆으로 주행한 과실, 그리고 임창용측은 후방주시를 소

홀한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임창용은 일본 경찰과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벌금형이 예상된다.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은 물론 임창용의 일본 내 면허가 만료된 것도 문제다. 2008시즌부터 5년간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뛰던 그는 일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무면허인 상태였다.

KBO 관계자는 "일단 22일까지 최대한 빨리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면, 대표팀 귀국일인 23일에 함께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현재 실전피칭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에서 열리는 평가전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약자가 닦일 수도 있다.

만약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KBO

김인식감독 "일단 22일까지 처분요청" 실전피칭 못한 상태...평가전 점점 약해

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KBO 관계자는 "국가대표팀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KBO의 징계를 따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4조(징계) 1항에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에 대한 징계는 KBO 규약 및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항에 의거해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코칭스태프의 훈련지시에 불응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몸 상태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딘 임창용의 교체 여부에 대해 김 감독은 "지금 교체 생각은 하지 않지만, 관찰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해오던 패턴이 있어 말기고 있는데 한국에선 경기에 나가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노 기자

## 대만서, 미국서...매의 눈으로 뛰어라 WBC 전력분석팀 '투트랙 분석 전략'

쿠바-대만전 분석...경기영상 확보 총력  
미국조도 네덜란드 훈련 관찰·자료수집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의 전력분석팀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있다. 미국과 대만으로 나눠 파견된 뒤 한국과 1라운드에서 격돌해야 하는 대만, 네덜란드 등의 전력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인식 전력분석팀장은 18일 최원호 해설위원, 대만전문가인 김윤석 스포셜리스트, 스포츠 통계전문가인 스포츠투어의 남성규 대리와 함께 대만에 들어가 쿠바-대만의 2차 평가전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20일 쿠바가 대만을 6-2로 꺾는 상황을 지켜본 김 팀장은 "최근 대만의 평가전에서는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에서 뛰는 천관위(쑤완)와 세이부에서 활약하는 귀진민(우안)이 3이닝 무실점으로 투구가 괜찮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예전보다 발전한 투수가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타자들 스윙이 크고 공격적이지만 아직 실전 감각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복귀한 대만은 쿠바와 2차 평가전 후 다시 일본 고베로 건너가 현지 사회인야구팀, 대학팀 등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대만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자주 만나 익숙한 상대다. 그러나 현재 동영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무래도 대만이 라이벌인 한

국에 경기영상을 쉽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전력분석팀은 22일 귀국하지만, 김 윤석씨는 혼자 대만에 남아 지인을 통해 대만 선수들의 영상을 확보한 뒤 28일쯤 귀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쿠바 역시 한국이 2라운드에 진출하면 만날 가능성이 큰 상대 전력분석을 소홀히 할 수 없다. 25일과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과 쿠바가 평가전을 치르지만, 이번 대만 출장길에서도 쿠바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전력분석팀은 현재 대만은 물론 이종열 전력분석원을 네덜란드가 훈련 중인 미국에 파견해 투트랙 전략으로 전력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3년 WBC에서 한국에 빼어난 패배를 안겼을 뿐 아니라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킨 다크호스. 이번에도 현역 메이저리거들이 다수 포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대다. 김 팀장은 "메이저리거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각종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다. 지난해 말 도쿄에서 일본대표팀과 평가전을 할 때 모아놓은 자료들도 있다"면서도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종열 위원의 미국 출장 일정도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대표팀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컨디션 끌어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전력분석팀은 대만과 미국에서 정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 ▶1면 '이대호 마이웨이'에서 이어집니다

### ●떨어진 실전감각, 대표팀 4번타자가 갖는 부담감

이대호는 떨어져 있는 실전감각이 가장 큰 걱정이다. 19일 열린 요미우리와 연습경기에서도 8회 대타로 들어가 요미우리 원소투수 토네 치야키를 상대로 서서 3구 삼진을 당했다. 그는 "불인자 스트라이크인지도 잘 모르겠더라.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놀랐다. 그만큼 배팅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다"며 "사실 3월에 경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 투수들도 몸을 만들고, 우리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다. 그런데 바로 150km짜리 공을 쳐야 한다. 준비과정에 힘든 게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연습경기를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훈련 때 감이 좋아도 배팅볼의 스피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전에선 늦는다. 계속 치면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파울을 많이 치면서 감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대호는 4번타자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4번타자를 치는 건 자존심도 살고 좋은 일"이라면서도 "사실 4번타자란 게 부담은 된다. 꼭 쳐야 하는 자리고, 언제든 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이상 성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는 고참으로서 부담감, 그리고 4번타자로서 부담감을 모두 짊어지고 WBC에 나선다. 한층 더 성숙한 '조선의 4번타자'는 그렇게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다.